

**미래인문학 인문역량지수**  
**논술형 측정문항**  
**(철학 영역)**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미래인문학 코어사업단

2018년 11월 5일 version 1.0

**[질문]**

[지문-1]~[지문-4]와 [자료1-]~[자료-2]를 활용하여, '차별'과 '혐오' 각각의 의미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차별'과 '혐오'를 넘어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1세기 한국에서 개인적·사회적으로 요청되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시오.

**[답안 분량]**

3,500자 이상 4,000자 이하

**[지문-1]**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모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였다. 서양 미술의 원류인 고대 그리스에서 남자 조각상은 대부분 누드로, 여자 조각상은 누드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의 반로였다. 고대 그리스는 굉장히 인본주의적 사회였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일 뿐 아니라 우주의 법칙 같은 것이 인간의 몸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우주의 완벽한 상징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인간이여도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완전한 나체로 표현함으로써 '완벽한 인간'임을 과시하였다. 완벽한 인간인 남자는 옷으로 스스로를 가릴 필요가 없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장식한다 해도 그의 몸 자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는 별거벗은 모습 즉 누드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반면 여자는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남자', '거세를 당한 남자'로써 조각에 옷을 입혀 여성을 묘사하였다. 불완전한 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문화의 옷, 문명의 옷으로 감싸 불완전한 몸을 가려야 했다. 여성은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남성은 완전한 존재로 보는 의식이 바로 남성은 누드로 표현하고 여성은 옷 입은 존재로 표현하는 미술을 발달시켰던 것이다.

## [지문-2]

토머스 데이는 부유한 정부 관료이자 대규모 영지를 소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일찍부터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죽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어머니는 아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변덕을 받아줘, 아들의 여성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데이는 사립기숙학교와 옥스퍼드대학을 다니면서 독특하게도 주변의 부유한 또래들이 빠져들었던 사치와 향락을 멀리했다. 대신 고대 그리스의 영웅과 특히 금욕을 중시한 스토아학과 사상, 당대의 계몽주의 사상가인 볼테르, 장 자크 루소의 사상을 깊이 받아들였다. 그는 천연두를 앓아 얻은 얼굴과 좁은 어깨로 “우스꽝스럽게 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당시의 유행이나 기본적인 식사 에티켓부터 모든 예절을 경멸하며, 멋대로 머리를 기르고 다니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잘 지키지 않아 여성들에게 네 번이나 청혼을 거절당한다. 이 일로 그는 한층 더 극심한 여성혐오에 빠져들게 된다. 그의 여성관은 맹목적이던 어머니의 모습과 스토아 철학이 기형적으로 결합돼 당시에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었다. “그녀는 그리스나 로마의 여신처럼 젊고 아름다울 것이었다. 또한 시골 아가씨처럼 순수하고 처녀여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강하고 두려움이 없는 스파르타의 신체적 조건을 가지되 꾸밈이 없고 때 묻지 않아서 옷이나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도 허름한 농가의 아이처럼 수수한 취향을 가져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데이를 주인이자 선생으로, 감독자로 여겨야 했다. 그의 욕구와 변덕에 완벽하게 맞추면서 그의 사상과 신념을 완전히 따라야 했다.” 자신은 전혀 완벽한 남성이 아님에도 초현실적인 여성상을 고집하다가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청혼을 거절당한 그는 점점 더 심한 여성 혐오에 빠져들고, 결국 자신의 기준에 맞는 여성은 세상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대신 그는 그런 아내를 직접 만들어내기로 마음먹는다. 21살에 후견인인 계부와 어머니의 관리 아래 있던 막대한 유산을 쓸 수 있게 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긴다. 한 시골마을의 고아원에서 각각 12살 사브리나와 11살 루크레티아(그가 지어준 이름)를 데리고 온 것. 당시에도 부도덕적이었던 이 계획은 남성연대의 도움과 묵인으로 현실화될 수 있었다. 독신인 데이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기혼인 친구 에지워스의 가사도우미 견습생으로 일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또 다른 친구인 런던의 잘나가는 변호사가 동행하자 고아원에선 의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아이들을 내준다. 데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프랑스 아비뇽으로 떠나 이들에게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쳤고, 동시에 모든 집안일을 떠맡도록 명령한다. 1년간의 교육과 관찰 끝에 그는 “진전이 있다는 표시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 루크레티아를 버리고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느낀 사브리나를 신부 후보로 택한다. 루크레티아를 버린 뒤 사브리나에게 집중된 데이의 교육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 그는 당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루소의 <에밀>에 큰 감동을 받고 이를 자신의 ‘아내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 특히 아이들을 고통으로 단련시켜야 한다는 대목을 그대로 실행했다. 그는 사브리나의 몸에 뜨거운 밀랍을 떨어뜨리고 핀으로 몸을 찔렀다. 담력을 기른다면 충을 치마에 쏘기도 하고, 사치를 혐오하도록 하기 위해 예쁜 옷을 주고는 좋아하는 소녀에게 그것들을 바로 불에 던지도록 명령한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까맣게 모르는 채로 이런 ‘교육’이 계속되자 결국 사브리나는 데이에게 반항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시험에서 탈락해 기숙학교로 보내지게 된다. 만 2년에 걸친 완벽한 아내 만들기 실험은 이렇게 일단락 난다. 데이는 단지 상류층 부자일 뿐만 아니라 당대에 이름난 시인이자 반노예제 인권운동가, 인기 아동도서 작가였다. 그는 빅넬과 함께 노예제를 공격한 최초의 시인 <죽어가는 검둥이>를 쓰며 일약 이름을 알리게 되고 노예제 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지만, 정작 자신이 사브리나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소녀 두명을 '교육'했던 경험을 반영해 쓴 <샌퍼드와 머튼>이란 어린이용 책은 한 세기 동안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현재도 팔리고 있다. 법적으로 독립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당시 여성들의 삶을 감안하더라도 데이의 실험은 명백하게 반인권적이었다. 그러나 정치인 이자 교육자 리처드 러벌 예지워스, 과학자 이래즈머스 다윈, 여류 작가 애나 수어드 등 18세기의 저명한 지식인인 그의 주변 인물들조차 실험을 방관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지문-3]

어진 통치자의 임무는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천하의 이익을 조성하고 천하의 해악을 제거하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현재 천하의 해악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가? “대국이 소국을 공략하고 큰 집안이 작은 집안을 침벌하며, 강자가 약자를 강탈하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고, 교활한 자가 우직한 자를 속이고, 귀인이 천인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천하의 해악이다. 임금이 은혜롭지 못하고 신하가 충성스럽지 못하고, 아버지가 자애롭지 못하고 자식이 효성스럽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천하의 해악이다. 그리고 요즈음 천인들이 칼, 독약, 물, 불 등의 각종 무기를 가지로 서로 해치고 살상하는 것 이것 또한 천하의 해악이다.” 그러면 이러한 갖가지의 해악이 발생하는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자. 이 모든 해악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발생했는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발생했는가? 틀림없이 “그렇지 않다.” 틀림없이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데서 발생했다.” 분명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는 것이 겸애주의인가 아니면 차별주의인가? 틀림없이 “차별주의이다.” 그렇다면 이런 차별주의야말로 이 세상에 참으로 크나큰 해악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차별주의는 그르다고 말한 것이다. 어떤 것을 그르다고 배척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안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겸애주의로써 차별주의를 대체한다.”고 했다. 그러면 겸애주의가 차별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령 모든 사람이 남의 나라 위하기를 자기 나라 위하듯이 한다면, 누가 자기 나라를 동원하여 남의 나라를 공략하려고 하겠는가? 남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곧 자기 나라를 위하는 것인데 말이다. 남의 도읍 위하기를 자기 도읍 위하듯이 한다면, 누가 자기 도읍을 동원하여 남의 도읍을 정벌하려고 하겠는가? 남의 도읍을 위하는 것이 곧 자기 도읍을 위하는 것인데 말이다. 남의 집안 위하기를 자기 집안 위하듯이 한다면, 누가 저 홀로 자기 집안을 동원하여 남의 집안을 전복하려고 하겠는가? 남의 집안을 위하는 것이 곧 자기 집안을 위하는 것인데 말이다.” 그러면 각 나라와 도읍들은 서로 공벌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집안들도 서로 분란을 일으켜 해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천하의 해악인가, 이익인가? 틀림없이 “천하의 이익이다.” 그러면 이러한 온갖 이익이 발생하는 근원을 한번 추적해보자. 이 모든 이익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발생했는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친 데서 발생했는가? 틀림없이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데서 발생했다. 분명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차별주의인가 아니면 겸애주의인가? 틀림없이 “겸애주의이다.” 그렇다면 이런 겸애주의야말로 이 세상에 참으로 크나큰 이익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진정으로 천하의 이익을 조성하는 방법을 찾고 채택하는 데에 겸애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면, 모두들 귀 밝고 눈 밝은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보고 들으며, 팔다리가 성한 사람들을 서로를 위해서 움직이고 사용하며, 도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가르치고 깨우칠 것이므로, 처자식이 없는 노인들은 봉양을 받으면서 명대로 살고, 어리고 약한 고아들도 의지 처를 두고 탈 없이 장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겸애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할 경우 그 이익은 이와 같다. 그런데 왜 세상 선비들은 한결같이 겸애주의에 대해서 알아듣고도 배격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 [지문-4]

신도가는 형벌로 발이 하나 잘린 사람이다. 정나라 재상 자산과 함께 백혼무인을 스승으로 모셨다. 자산이 신도가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가 남아 있고,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 있기로 하세.” 그 다음날 둘이 또 한 방에 들어가 같은 자리에 앉게 되자, 자산이 신도가에게 다시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가 남아 있고,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 있기로 하세. 이제 내가 먼저 나갈 터이니 자네가 남아 주겠는가. 또 자네는 나 같은 재상을 보고도 자리를 비키지 않으니 자네가 재상과 맞먹겠다는 것인가?” 신도가가 대답했다. “선생님의 문하에 정말로 이처럼 재상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자네는 재상이라고 우쭐해서 남을 뒤로 밀어내려 하는군. 듣건대 ‘거울이 맑으면 먼지가 끼지 않고, 먼지가 끼면 정말로 맑은 거울이 아니다. 현인과 오래 지내면 잘못이 없어진다’고 하더군. 지금 자네가 우리 선생님을 크게 받들며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니, 그것이야말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자산이 대답했다. “자네는 그 꼴에 요 임금과 훌륭한을 겨누려 하는군. 자네의 덕을 헤아려 보게.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른단 말인가?” 신도가가 대답했다. “자기 잘못을 변명하면서, 벌 받는 것이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잘못을 변명하지도 않고, 온전한 몸으로 살아남음을 오히려 항공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드무네.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편안하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덕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지. 활 잘 쏘는 예의 활 사정거리 안에서 놀 때, 그 안은 모두 화살에 맞을 수 있는 땅. 그런데도 맞지 않았다면 그것은 운명일 따름이지. 그런데도 자신이 온전하다 하여 내 발 하나 없음을 비웃는 사람이 많았네. 나는 그 때마다 불끈 화를 내다가도, 선생님 계신 곳에 가면 그런 마음을 말끔히 씻고 평소 상태로 되돌아왔네. 선생님께서 훌륭한하신 덕으로 나를 씻어 주셨나 보이. 내가 선생님을 19년 동안이나 따르며 배웠지만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외발’임을 아신다고 내 비치신 적이 없으시네. 이제 자네와 나는 몸 안의 세계를 배우는데 자네는 아직 몸 밖의 것에만 눈을 돌리고 있으니 이것 역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자산은 부끄러워 풀이 죽은 채, 낮빛을 바꾸고 용모를 고쳐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세.”

[자료-1]





[자료2]

